

여성학 입문 : 포스트모던 시대의 여성

제3강 포스트모더니즘:데리다와 라캉을 중심으로

강사 : 박남희

◆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 학습목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 모더니즘의 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세계화라는 문제와 상충되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담아내는 하나의 문화 장르가 되었다 좁게 생각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나간 사유지만 조금 더 확대해보면 우리사회에는 다원주의가 존재하고 다문화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현실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규정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가 근대를 표현할 때 모더니즘 시대라고 한다 근대의 특징은 인간 이성을 척도로 삼는 것이다 모든 가치의 척도를 인간의 이성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검증되어 객관화된 것 보편성을 가진 것에만 진정성을 부여한다 모더니즘은 중세의 신 형이상학을 부인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넣음으로써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정된 틀에 현실을 대입했을 때 틀 안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 시대에는 틀을 벗어난 것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틀 안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이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고유함 개성 개별성은 무시되었다 틀 안에 들어가려면 고유성은 유보하든가 버려야만 하는 현실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 차이를 인정하라

모더니즘 이성의 틀은 남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여성이 아무리 이성적이라도 남성의 틀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못했다 여성이 남성의 이성적인 틀 안으로 들어가려면 남성들에게 동조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삶의 태도를 취해야 했다 그래서 여성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의 틀과 자신의 정체성의 괴리감을 느끼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성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유를 통해서 모더니즘을 전복하고 거기에 남성의 이성이라는 기존의 틀 자체를 부수버리는 이중의 작업을 시도한다 먼저 사물을 일반화 수치화시켜 규정하고 단일화 시키던 모더니즘의 사유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로 보려고 시도한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은 우월의 사고이다 그러나 다른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 종횡의 사고를 가지게 된다
다름이라는 것은 그동안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남자와 남자 문화와 문화 인종과 인종 있는 자
와 없는 자를 차이의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번도 여성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도 차이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열려고 한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스트
들이다.

▲ 변화하는 시대 속의 선입견

남녀에게는 가장 명백한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 .
하다 남성의 신체구조는 역삼각형이 되어있고 여자는 정삼각형이 되어있다 따라서 남성은 들
어 올리는 힘이 강하고 여성은 내리는 힘이 강하다 남성이 구조적으로 여성에 비해 힘을 더
쓸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 물리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
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이 되며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겨진다
어느 사회마다 힘은 요구된다 그 힘의 형태는 신체적 힘에서 자본의 힘 정보의 힘으로 변천되
어왔다 어떤 힘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신체의 힘으로 살던 시대
에는 강한 신체를 가진 남성이 문화를 좌우하고 권력을 가졌다 시간이 흘러도 남성들이 우월하
다는 선입견 때문에 시대가 변했음에도 남성우월주의로 사회가 작동한다 이 사슬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라캉과 데리다의 작업이었다.

▲ 자끄 데리다

데리다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지만 북아프리카 태생이다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온 데
리다는 유복하게 자란 파리티생 지성인들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겪은 듯하다 대학을 그만둔 데
리다는 홀로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는 중심으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부딪혔던 견고한
장벽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 이런 생각이 차이에 관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유의 원동력이 된다
데리다는 어렵게 교수가 되지만 프랑스에서 인정받지 못해 미국으로 건너간다 미국이라는 사
회는 다원주의 사회다 파라도 다인종 세계이기는 하지만 유럽 대부분이 그렇듯 전통에 짓눌려
있는 곳이다 데리다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사상을 펼치려고
한 것 같다 그래서 데리다는 다인종국가 다문화국가인 미국에서 차이에 대한 것을 발표하게
된다 프랑스 철학의 특징은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지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선두주자가 데
리다였다 자신이 생각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가 표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야당
으로 남으며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나 노선 철학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 데
리다의 철학은 어떤 것을 규정하지 않고 끊임없는 차연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다.

◆ 데리다의 차연

▲ 차연

전체를 무엇이라고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진리로 규정짓
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오만한 독단론에 빠진 사람이다 부분인 나는 전체를 담을 수 없다 스스
로를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것 외에는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전체를 말하고자 함
은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만큼의 세계에 대한 이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한 시대와 공간 안에서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대와 함께 중첩되며 역사가 된다 고정적인 것을 가지지 못하고 차이로 인해 끊임없이 연기 유예되는 것 진리는 이런 차연일 뿐이다 다른 시간 역사 차연 시간과 공간을 따라 인간은 다르게 언표한다는 것이 데리다가 말하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다.

▲ 철학과 삶을 일치시켰던 데리다

독단론은 인종에 대한 소외 가난한 자에 대한 소외 국가적 소외 등 많은 것을 소외시켰다 데리다는 이런 소외를 없애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를 지지하고 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자 관심을 끊는 등 권력과 결탁하지 않는다 데리다는 자신의 삶과 정치를 자신의 철학과 일치시키려고 부단히 애쓴 사람 중의 하나다 데리다는 여성의 소외문제에도 관심을 갖는다 진리라는 가면을 쓴 독단은 여성도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여자는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든가 사회화되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든가 하는 생각은 여성이 그 시대 공간 안에서 남성들에 의해 마치 그것이 본질인양 호도되었다는 것이다.

▲ 데리다 철학의 배경 살롱문화 .

지리학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는 프랑스에는 다인종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자유주의 사상이 싹튼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으로 인해 카페문화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프랑스는 카페문화 살롱문화를 통해 어느 지역보다 토의문화가 발달한다 토의 문화를 통해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람마다 살아온 공간 시간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살롱문화는 처음에는 귀족 사이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유주의 사상이 싹트고 르네상스와 혁명을 거치면서 일반시민 대중에게 전파되어 여론문화가 형성된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이 동등하게 수렴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통일성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마치 빛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색이 펼쳐지는 프리즘처럼 인간은 다양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사람들은 동감한다.

▲ 동감과 초월

낭만주의 사회가 계몽주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동감 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들어온다 동감이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그 사람 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확대되어 하나의 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삶 다른 사회 다른 성으로 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삶을 하나의 텍스트로 봤을 때 성 이성의 문제도 텍스트처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성을 바라보는 것은 완벽한 이해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동감의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데리다는 초월 이라고 한다 데리다는 텍스트를 원래의 의도를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고정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텍스트라는 것이 데리다에게는 대화의 상대인 것이다.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데리다는 텍스트의 고정된 관념을 부숴버린다.

▲ 차이를 통해 변화하는 삶

영화감독이 자신의 영화에 대해 그 목적과 내용 등을 말해버리면 관람자는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없다 삶이라는 것도 규정해버리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갇혀버리고 규격화된 여성이 어

떤 존재라고 규정해버리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 틀에 갇혀 버린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 시간 안의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차이를 통해 내 삶을 역동적으로 형성해나가는 힘을 갖는다 만약 사회의 틀 안에 갇혀있다면 세상은 똑같은 것의 재생산이다 그러나 예술의 세계는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마다 다른 것 이다 자기의 눈으로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 차이가 말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근본인 것이다 여기에 데리다는 시간개념을 더해 차연이라고 한다 차이를 가지면서 시간의 연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뀌어나가는 것이다 여성은 신체적 힘으로 살던 과거에 신체적인 열세를 빌미삼아 폄하되고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뀔때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관의 틀에 묶여있다 이제 여성들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스스로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 차별과 차이

공사장에서 남성이 벽돌을 스무 장 나르고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여성은 열 장 날라서 차등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것은 성차별인가 그렇지 않다 신체의 차이에서 온 힘의 논리일 뿐이다 만약 인터넷을 이용해 같은 종류 같은 강도의 일을 하는데 남녀의 임금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차별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눈으로 여성을 보지 않는다 여러 가지 관점이 뒤섞이고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다보니 남녀 모두가 수긍할 수 없는 모순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특정한 시공간 문화권 안에서 어떤 논리를 들이대야 하느냐가 예민한 문제가 된다 여성의 흡연이나 남성만 입대하는 것의 불평등함 등의 쟁점은 차이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들이다.

▲ 리더 새로움의 창조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를 데리다는 지적한다 현재의 시대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데리다는 말한다 무엇인가를 규정해버리면 그 이면은 볼 수 없다 끊임없이 미끄러져나가는 차연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뒤에서의 작동원리를 잘 보지 못한다 시계를 보면 시침 분침이 가는 것만 볼 따름이지 그 원리는 도외시하고 있다 데리다는 시계 속의 톱니바퀴를 보라고 한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를 진리라고 고백하는가 우리들이 진리라고 규정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시침과 분침이라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시간을 가르쳐주는 시침 분침이었던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원리는 차연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헤겔 시대정신 시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원리를 알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시대가 정한 가치관에 입각해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변화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 새로움을 창출하는 사람은 그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리더다. 삶의 예술가인 것이다.

▲ 여성의 음성 여성의 글쓰기 ,

데리다는 여성이 여성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전에는 여성이 여성을 읽지 않았다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 읽혀질 뿐이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여성의 글쓰기 여성의 목소리 내기다 데리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여성학자들은 이제 여성의 정체성 찾기 여성 읽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여성의 글쓰기나 목소리 내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긴 세월 세습되고 고정된 관념들을 부수며 본연에 내재된 작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데리

다는 이것은 현상학과 연결시킨다 기존에 있던 선입견 판단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중지시켜 버린다 그런 다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본연의 것들을 살리는 것이 현상학적 인식이다 이 인식을 통해야만 여성이 여성으로서 글쓰기 듣기 말하기가 가능하다 엄청난 내공과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 판단하는 삶

울리시즈의 시선이라는 영화에는 죽음의 계곡이 등장한다 그곳을 지나가는 배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홀려 부딪히거나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에 홀려 판단을 잃고 난파되어 죽는다 어떻게 하면 죽음의 계곡을 살아서 지나갈 수 있을까 선장은 사공들의 눈을 가리고 노를 젓게 하고 자신은 귀를 막은 채 돛대에 몸을 묶는다 그리고 노 젓기를 지휘해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간다 인간은 선장처럼 스스로 판단하는 유형이 있고 사공처럼 시키는 대로 노동할 뿐인 유형이 있다 판단하는 자는 자신을 묶는 선장처럼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단하는 자는 의미를 건져 올리며 죽음을 횡단한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아가는 것이다 여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며 또한 어느 쪽으로 방향 지을 수도 없다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느 모습으로 살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스스로 내리는 판단에 의거해 산다는 것이다 누구의 아내로서 행복함을 느끼는 여성도 있고 세상에 뛰어 들어 봉사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우리 여성의 삶을 하나로 규정짓지 말자 각자의 시공간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여성도 남성과 더불어 다양하게 표현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 기표와 기의

▲ 기표와 기의의 분리

이전에는 기표와 기의가 분리되지 않았었다 꽃이라는 말은 외적 대상으로서의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이라는 기표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소쉬르에 의해 기표와 기의가 분리된다 같은 꽃이라고 하더라도 저마다에게 의미가 다르고 부르는 기표가 다르다 기표와 기의를 분리하는 것은 이 둘을 어떻게 관계 짓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무한히 상정하지 않는다 기표에 대한 기의가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더 늘어나긴 하지만 한정된 일정한 범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쉬르 등 기존의 언어학자들은 말과 글에서 말에 우선권을 둔다 반면에 데리다는 기표의 의미를 무한한 것으로 았다 또한 말보다는 글에 우선권을 둔다 말이라는 것은 일회성을 갖기 때문에 고정되고 규정되어 권력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글은 완성된 순간 저자와 분리되어 읽는 독자들에게 의해서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데리다는 기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의미를 살리는 입장에서 말보다는 글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일방적인 전달 명령인 말에 비해 글이라는 것은 독자와 글과의 관계 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해석이 시간과 더불어 무한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세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 기표와 기의 해석의 문제 ,

요강이라는 하나의 기표가 있다고 하자 요강이라고 하면 소변기 골동품 유물 민속품 등 여러 의미를 떠올린다 또한 요강이 상인에게는 판매하는 하나의 물건일 뿐이고 환자에게는 보조기

고 예술가에게는 하나의 소품이다 요강의 본질이 소변을 받아내는 그릇이라는 기의가 있다고 해도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른 역할을 가지고 다른 사고를 가지게 한다 이렇게 기표와 기의의 관계 하나의 기표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해석 작업이다 시대가 지나면 하나의 흔적이 흔적을 낳아서 그것이 차차로 연기되는 차연을 가져온다 그 흔적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제작자나 저자의 의도가 아닌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 데리다와 라캉

데리다는 숨은 의미들을 찾아 생동감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정화된 언표를 해체하는 작업을 한다 한편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사회의 언어가 인위적인 의미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권 안에 구조적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대표이론으로 내세운다. 그들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도 필연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인 것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언어와 사고내용과는 필연적 관계가 없으며 문화 안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인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필연적인 것으로 여겼던 자연스러운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 이 사실은 사회문화 안에서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소쉬르에 의해서 분리된 기표와 기의는 이제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목적 하에서 인위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시도했던 일이다.

▲ 라캉의 정신분석

고양이 라고 하면 야옹하고 우는 포유류 동물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가 고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양이와 다른 동물과의 차이를 담기 위한 사회의 인위적인 약속일 뿐 고양이라는 기표가 고양이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차이를 말한다는 것은 내부적 차이냐 외부적 차이냐의 문제가 있다 이 때 차이라는 규정은 언어체계가 어떤 적극적인 외부 실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혹은 부정적으로 내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내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자는 내부의 약속이 어려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습득되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캉은 그것을 심리학적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한다 어려서부터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내부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고양이라고 언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캉은 남성성과 여성성도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분석해 들어간다 그것이 어떻게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로 언표되는가를 분석해 들어가는 것이다.

▲ 압축과 전치

라캉은 기표와 기의를 압축 전치라는 관계로 보고 자신의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테마로 삼고 있다 압축은 성장기 때의 무의식이 압축되어있는 것이고 전치는 본질을 가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부각시키며 본질을 오독하게 하는 것이다 라캉은 무의식이 의식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불러오려면 융기된 퇴적층에서 시대를 읽어내듯이 어렸을 때 압축된 무의식을 되살려놓는 작업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전치되어 있는 중요하지 않은 것과 거짓을 가려내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이라는 언표를 가지고 시간의 압축을 풀어내 다시 해석하면서 전치된 것을 제자리에 놓는 , 것 두 작업의 병행이 필요한 것이다.

▲ 현실계 상상계 상징계

라캉의 이론에 의해 여성에 대한 해석 작업이 이뤄지면 그동안 여성을 규정했던 기의 언표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라캉은 현실계 상상계 상징계라는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들의 관계를 통해 여성이 어떻게 상징되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 현실계, 실세계

현실계는 상상계와 상징계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세계다 의미 의식 이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물의 세계를 말한다 라캉은 현실계를 인간을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보며 현실계에서는 항상 물질적인 것이 욕구의 대상이므로 결여의 배경이 된다고 한다 결여의식이 무의식중에 내면화되면 상상계로 넘어오면서 정신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인간에게는 누구나 결여를 느끼는 원초적 감정이 있다 성적 욕구의 충족도 그 순간에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늘 희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감정의 대상이나 표현은 문화권에 다르게 나타난다.

- 상상계

상상계로 넘어가는 단계는 거울단계라고도 하며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때 인간은 자아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를 느낀다 자신의 객체화된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인지하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외의식은 동일성과 이중성 사이에서의 갈등을 일으켜 건강한 사유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분열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 상징계

라캉에 의하면 언어의 세계는 상징계에 옴으로써 주체성을 발현한다 원래 있었던 자연의 단계가 문화의 단계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상징계에서는 문화의 옷을 입은 자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때 여성의 정체성 남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에 의해서 가치관이 입혀진다 정체성은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언어를 통해 사회화하고 문명화하고 가치관을 내재화하고 심지어 조작하게 된다 기표와 기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인위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관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사회의 요구 문화적 가치관에 의해 길러지고 만들어진 것이다.